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음 5월 4일) 제18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국 드론축구단 출범
전주시는 지난 26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드론축구단과 전국 동호회 선수단, 자치단체 선수단 등 총 30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준비를 위한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전북연구원, 농생명·제3금융·공간문화지식서비스

혁신도시 3대 허브 전략 제시

전북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전략에 맞춰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 정책브리핑을 제시했다.

전북혁신도시는 도시 기반시설 조성 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어 향후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화된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기관특성을 지역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허브, 제3 금융허브, 공간·문화 지식서비스허브 세 분야의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14개 시·군 전체로 확장하는 트라이앵글 허브전략을 내 놓은 것이다.

농생명 허브육성은 농생명 신산업육성

농생명 신산업 육성
연기금 특화중심지
전기안전실증단지 조성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인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관련
유치전략 필요성도 제기

성, 농생명 교육혁신파크조성, 지역농업특성화 3대 전략하에 국립농업치유원 설립, 농업안전클러스터 조성 등 11개 사업이 제안됐다.

제3 금융 허브육성은 연기금 특화중심지 조성, 농업금융 기반구축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건

립,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등을 통한 농업금융 거점조성 등 5개 사업이다.

공간·문화 지식서비스허브육성은 스마트 행정고도화와 지역서비스 밀착화 2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실증단지 조성, 해양지역 공간정보실증지구 조성 등 8개 사업을 제시했다.

인프라와 관련,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전라선을 활용한 새만금-군산-익산-전주 간 트레인 확충 및 전주역, 전북혁신도시, 김제역으로 이어지는 트램노선을 신설하는 트램-트레인 건립이 추가로 제안됐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육성정책에 대비해, AI, AR, IoT, 로봇, BT 등 첨단기술들을

전통농업에 접목시킨 제조형 농업벤처의 육성과 비즈니스, 전시 체험, 교육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농업혁신 생태계 모델로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정책과 관련해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관련 농자재, 식품, 유통 및 금융관련 자산관리, P2P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등 대기업 유치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영 박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전북 지역 연계발전전략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가뭄 선제대응 나섰다

오늘부터 상황실 운영
징후 해소될때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지역별 모니터링도

전북도는 지난 26일, "올 봄 낮은 강우량으로 인해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사전대비 및 만일의 가뭄피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아직 가뭄 '주의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음에도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 가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도내 저수지에 4억6700만톤(67.7%)의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말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향후 기상청 기상전망 등을 고려해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가뭄 '주의단계'는 저수율이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령되나, 현재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86.7%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기(41%), 충남(51%) 등 일부 지역의 가뭄상황을 고려, 5월 25일자로 가뭄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및 운영을 착수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9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14개 시군과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가뭄에 적극 대응해 줄

것과 관계기관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뭄대응 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게 될에 따라 가뭄징후가 해소될 때까지 근무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앞으로의 기상상황 및 가뭄추이에 따라 지역 별 가뭄현황 모니터링 및 가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실시 및 가뭄발생 우려지역의 항구대책 마련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국가예산의 조속한 교부 요청 및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수·저수상황, 가뭄발생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물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 가능한 인력,장비,예산 등을 통해 긴급 용수공급대책을 추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다.

나아가 지역별 현황을 감안한 기존 관정,양수장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 제한급수, 농경지 퇴수 재활용 공급, 하천유지용수 방류 최소화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감수구 농축수산물포장장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뭄대비를 위한 국가예산 조속 교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종 용수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9월 말까지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

도, 특보 발령시 가두방송 실시

전북도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6일 도에 따르면 올 여름 폭염일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오는 9월 말까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6~7월에는 평년기온보다 높고 8월에는 평균기온이 상승해 폭염일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도는 각 시군과 실시간으로 폭염정보를 공유하는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4219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

했으며,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8004명을 지정했다.

또 야외사업장과 건설사업장 등에 대해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을 계도하고 폭염특보가 발령할 경우 마을방송과 가두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 가축 폐사를 방지하기위해 노후된 축사에 환풍기와 제빙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축사 내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 전 조기출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예방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중소 행사 유치 마이스 명소화한다
3면 - 세월호 후대전화 데이터 복원
5면 - 고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출범
16면 - 5월 막바지 최고의 산책길

부안군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부안참뽕**
부안참뽕 특산품으로 소중한 사랑과 정을 나눠보세요!

오디생과 부안봉주 누에야 봉잎진뽕 오디진뽕 봉잎고들레